

농업관측정보

과채관측

□ 과채류 11월에 이어 가격 하락안정세 지속 될 듯

▶ 오이, 호박 출하량 늘지만 수박, 토마토 작년보다 감소할 듯

- 애호박은 영남지역 재배규모 늘어 반입량 증가하고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듯
- 백다다기오이는 영남, 충청지역의 재배규모 확대에 가격 낮을 전망
- 토마토는 병충해 피해, 과비대 불량으로 반입량 작년보다 적을 듯
- 수박은 출하지연과 작목전환으로 재배면적 줄어 반입량 감소 전망
- 딸기는 출하면적 감소로 평균가격 작년보다 높지만 하락세 보일 듯

▶ 방울토마토, 취청오이 제외한 12월 과채류 정식 작년보다 증가 전망

- 방울토마토는 타작목 전환과 난방비 부담으로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
- 애호박 12월, 내년 1월 정식은 영남지역 재배확대로 증가할 듯
- 백다다기오이 정식은 충청지역 재배의향 증가로 작년보다 늘 전망
- 수박 12월 정식은 작년과 비슷하고 1월은 노동력 부족과 작목전환으로 감소할 듯
- 참외는 겨울철 저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월 정식을 12월로 앞당길 전망

채소과채 정식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(%)

	애호박	백다다기오이	취청오이
12월	1.1	5.4	-5.2
1월	10.3	0.5	-3.3

과일과채 정식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(%)

	수박	참외	일반토마토	방울토마토
12월	-0.1	3.9	0.3	-1.8
1월	-0.5	-2.9	-1.1	0.2

과일관측

□ 내년 사과·복숭아는 재배면적 증가, 배·단감은 감소 전망

▶ 사과 중·과 물량 많아 설 이전부터 앞당겨 분산출하 필요

- 사과·배 12~1월 출하량 적어 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듯
- 올해 생산량은 사과 작년보다 5%, 배는 14% 감소 추정
- 올해 저장량은 사과 작년보다 5% 증가, 배는 12% 감소 추정
- 내년 재배면적은 사과 올해보다 1% 증가, 배는 1% 감소 전망

▶ 노지온주 생산량 작년보다 22% 적은 51만 4천톤 전망

- 노지온주 당도는 10월 이후 일조량 많아 평년수준으로 회복
- 월동온주 생산량 작년보다 9%, 한라봉은 4% 증가 전망
- 단감 12~1월 출하량 작년보다 적어 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듯
- 내년 단감 재배면적은 작목전환 및 폐원 등으로 1% 감소 전망

▶ 포도 가온시기 지연으로 내년 시설포도 출하시기 늦춰질 듯

- 포도 노지재배는 올해와 비슷한, 시설재배는 4% 증가 전망
- 12월 포도 수입량 미국현지 시세 높아 작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듯
- 천도계 조생종을 중심으로 복숭아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6% 증가 전망

채소관측

□ 엽근채소 12월 가격 가뭄과 저온으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

- ▶ 배추·무 가격 상승까지 강세이나 중순부터 하락 전망
 - 배추 12월 도매가격은 중순 이후부터 월동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상승(8,500원/상품 10kg)보다 낮은 7,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. 한파와 폭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 9,000원까지 상승할 전망.
 - 무 12월 도매가격은 호남지역 가을무 출하량 감소로 상승까지 11월 하순 대비 보합세(23,000원/18kg)이나 중순부터는 제주 월동무 출하가 시작되면서 2만원으로 진정될 전망. 한파 피해 시는 가격 강세 전망.
- ▶ 감자·당근·양배추 가격도 강세 지속 전망
 - 감자(수미) 12월 도매가격은 저장량 감소로 평년보다 53% 높은 상품 20kg당 32,000원 전망. 대지가격도 가을감자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어 평년 대비 크게 높을 전망.
 - 당근 12월 도매가격은 겨울당근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평년보다 66% 높은 상품 20kg당

31,000원에서 형성될 전망.

- 가을양배추 출하량 줄면서 12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3배 이상 높은 13,000원 전망. 하순부터 제주 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면 중순보다는 낮을 듯.

□ 양념채소류 12월 가격 전월대비 약세 전망

- ▶ 마늘·양파 정부수입물량 증가로 전월대비 약세 전망
 - 마늘 재고량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, 12월 민간 수입 증가와 증량된 정부수입물량(1만 2천 톤) 지속 방출 예정. 따라서 12월 가격은 전월에 이어 약세 전망.
 - 양파 12월 가격은 조정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입고가격으로 조절출하가 이루어져 평년대비 강세 전망. 하지만, 금년 정부수입물량이 12월에 모두 도입될 것으로 보여 전월 가격보다는 약세 전망.
- ▶ 풋고추는 저온현상, 파는 가뭄으로 가격 강세 지속
 - 건고추 재고량은 2010년산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24% 감소한 25,000톤 추정. 따라서 12월 가격은 평년보다 높으나 전월에 이어 강세 지속될 전망. 내년 1월 이후에는 수요 감소로 12월보다 다소 하락 전망.
 - 풋고추 12월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저온 장해에 따른 단수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월에 이어 강세 지속 전망.
 - 대파 12월 가격은 지속된 가뭄과 저온 현상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지만 전월보다 낮을 전망. 중순부터는 전남지역 본격 출하로 상승보다 하락할 듯. 겨울철 한파

에 대비한 생육관리 필요.

- 쪽파 12월 가격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평년보다 높으나 전월보다 낮을 전망.

곡물관측

□ 7~9월 산지 쌀 가격은 작년 10~12월 대비 7~9% 상승 전망

▶ 산지 쌀 가격은 11월 이후 상승세 지속

- 산지 쌀 가격은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5일 14만 592원/80kg으로 전월보다 1.5% 상승함. 2011년산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만 7천ha 감소한 85만 5천ha로 전망됨.

▶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 벼 자체 매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1.5% 감소

- 2010년 12월 말 산지유통업체 벼 자체 매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1.5% 감소한 176만 톤으로 조사됨.
- 벼 매입실적이 감소한 것은 산지유통업체의 매입의향은 있지만 생산량이 전년보다 12.6% 감소하였기 때문임.

▶ 2011양곡연도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4.1% 감소 전망

- 정부 매입량이 감소하고 밥쌀용 쌀 수입량이 늘어나지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2011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4.1% 감소 전망.
- 2011양곡연도 연평균 쌀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4.7% 상승한 14만 3천원/80kg 내외가

될 것으로 전망됨. 쌀 가격은 1월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5월에는 14만 5천원 내외, 7~9월에는 14만 9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▶ 2011년 2~4월 일반 콩 가격(백태 상품 도매가격)강보합세 전망

- 2010년산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24.3% 감소하여 2011년 2~4월 국산 콩 가격(백태 상품 도매가격)은 강보합세 전망 됨.

▶ 2011년 전체 콩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12.7% 증가 전망

- 전국적으로 콩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2.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 살펴보면, 호남이 26.8%, 충청 12.7%, 강원·경기 및 영남이 각각 12.0% 증가하였으며, 제주의 경우 4.9% 감소할 것으로 전망.

▶ 2011년산 콩나물 콩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1.8% 감소 전망.

- 2011년산 콩나물 콩 파종면적은 전년보다 1.8% 감소한 7,574ha일 것으로 전망. 콩나물 콩 주산지인 제주지역이 4.9% 감소. 전남, 전북지역이 각각 14.0%, 17.0% 증가.

▶ 2011년산 콩나물 콩 생산량 1만 2천~1만 3천 톤 전망.

- 2011년산 콩나물 콩 재배의향 면적은 7,574ha 정도로 생산량은 1만 2,097~1만 3,371kg로 추정. 평년단수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추정하면 올해 콩나물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0.3~10.9% 증가 전망. ㉠